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 1946년 10월 26일 창간 | i-honam.com | 제 3051호 | (음력 11월 7일)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올해 광주·전남 10대 뉴스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났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어느덧 세밑에 다다랐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시작, 코로나19로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삶 전체를 강타한 시기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안전지대가 없다

2월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광주·전남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칠 줄 몰랐다. 누적확진자는 광주가 어느새 900명을 바라보고 있고, 전남도 500명에 이른다. 해외 입국·신천지교회 등을 매개로 번진 1차 유행에 이어, 2·3·4차 유행은 일상 생활 깊숙이 파고 들며 동시다발적 지역 감염 양상을 띄었다.

방문 판매, 교회·사찰, 유흥주점, 요양병원, 술집, 음식점, 학교, 체육동호회, 피트니스클럽 등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마저 의료진 집단감염이 발생, 의료체계 혼선과 공백으로 이어졌다.

전파 경로 조차 알 수 없는 '조용한 감염'이 계속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현장에선 등교 중단과 재개, 원격수업 전환이 반복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전두환 23년 만에 유죄, 5·18 헬기사격 재입증

전두환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기인 올해 광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래 23년 만이다. 전씨는 5·18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기록·증언 등으로 미뤄 1980년 5월 계엄군이 헬기에서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은 결국 '역사의 부메랑'이 됐다.

전씨는 광주 재판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보를 이어갔다.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한 뿌리" 광주·전남 통합 '가시밭길'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9월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정책토론회에서 깜짝 제안하며 삽시간에 광주·전남 정치권과 관가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시·도 행정기관 통합은 교육청과 일선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2개월 가량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신경전 끝에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상 민선8기에 하기로 11월2일 합의하며 소모적인 논쟁은 일단 일단락됐다. 행정통합이나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키로 로드맵을 이끌어 낸 것은 성과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민간공항 이전 유보 방침에 반발한 전남도의회가 행정통합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했다.

◇'600㎜ 물폭탄' 광주·전남 최악 물난리

8월7일부터 사흘 간 최대 600㎜가 넘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전남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0명(전남 9명·광주 1명), 실종 2명(광주·전남 각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재민도 3819명이나 발생했다.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광주 1560억 원, 전남 43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섬진강댐 무단 방류로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구례지역은 피해 추산액만 1300억 원을 넘겼다.

정부는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나주·함평·영광·장성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어 광주도 북구·광산구 전역, 남구(효덕동·대촌동), 동구(학운동·지원2동), 서구(유덕동·서창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돼 시설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계 '신음'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은 산업구조가 열악한 광주·전남 지역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내몰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줄을 이었고, 광주 도심 상권 공실률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면(언택트) 시대를 연 코로나19는 여행·운수·숙박 등 관광업종에 가장 큰 생채기를 남겼다. 관광객 급감에 숙박시설과 상점가 등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직원을 내보내고 업주 홀로 버티다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5·18 3법 드디어 통과, 숙제 풀고 통합의 길로

5·18 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5·18 진상규명법, 5·18 허위사실유포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미완의 숙제를 풀고 통합의 길을 열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평가다.

특히 40년 만에 5·18역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가 마련됐다. 5·18을 왜곡하는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갖춘 셈이다. 법 통과 이전에는 '5·18과 관련한 명백한 허위사실(북한군 개입설 등)'을 유포하더라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만 유포자 처벌이 가능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출판물 등으로 사실 관계가 확인된 5·18역사를 왜곡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말로만 천년공동체" 거꾸로 가는 상생

'천년공동체', '한 뿌리'를 외쳐대온 광주·전남이지만, 올 한 해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머리나 가슴이 아닌 등을 맞댄 한 해로 기록된다.

군(軍)·민간 공항 이전은 대표적인 예로,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이전 약속을 시민여론을 이유로 사실상 번복한 광주시와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던 언약과 달리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전남도, 여기에 국방부의 '뒷짐'과 정부 무기력으로 공항 이전은 기약없이 표류했고, 지역민들의 피로감은 커져만 갔다.

20년 만에 꺼내든 광주·전남 통합 문제도 소모적 논쟁만 이어오다 공동연구용역을 출구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도·농 간 버스 노선 문제 등도 덧셈이나 곱셈이 아닌 '뺄셈의 행정'으로 지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첫 발 내디딘 민선체육회 부끄러운 민낯

올해 1월 체육계는 자치단체장이 겸직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생활체육과의 접목을 통해 발전 전략을 세우고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태동부터 잘못 만들어진 규정 등으로 인해 출마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결국 흉기 폭행과 폭언 등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이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답습됐다.

전남 강진체육회장은 10개월 만에 인신구속됐고, 보성체육회장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4·15 총선 민주당 '고토 회복', 24년 만에 전 지역구 석권

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광주·전남에서 18개 지역구 의석 모두를 싹쓸이하면서 4년 만에 '고토 회복'에 성공했다. 4년 전, '녹색 태풍'의 주역이었던 민생당 의원들은 6선 중진을 포함해 모두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다.

'16(국민의당)-1(민주당)-1(자유한국당)'이던 지방의회 세력 분포가 '18(민주당)-0'으로 확실한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소선거구가 도입된 13대 총선(1988) 이후 14대 민주당과 15대 새정치국민회의 이후 24년 만에 세번째다.

◇백운고가 32년 만에 철거...도시철도 2호선 본격화

1989년 11월, 길이 385.8m, 폭 15.5m, 왕복4차로 규모로 개통된 이후 광주의 남쪽 관문역할을 해온 백운고가가 32년 만에 철거됐다. 도심 경관 훼손과 주변 상권 침해 문제로 오랜 기간 제기돼온 고가 철거가 한 세기만에 해결된 셈이다.

광주시는 도로 이중 굴착과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병행해 백운고가 철거 작업을 지난 6월부터 5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고가 철거와 함께 진행된 도시철도2호선 공사도 지난해말 착공식 이후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와 50여 일간 이어진 긴 장마 등 악조건에도 불구, 올해 계획 공정률(16%)을 조기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봉우 기자